

교수로 인생 2막여는 기보배 “후학 양성·양궁 대중화 힘쓸 것”



광주여대 스포츠학과 기보배 교수가 5일 광주여대 교수 연구실에서 스포츠심리학 수업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모교 광주여대 스포츠학과 교수 임명...스포츠심리학 등 수업 선수생활 경험 토대로 편안하게...“학생들에 겸양의 태도 강조”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모교인 광주여대의 스포츠학과 교수로 새 출발했다. 이젠 선배가 아닌 교수로서 학생들을 만나는 기보배는 그가 맡은 과목인 전공 실기, 스포츠심리학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계획이다.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한 기 교수는 2010년 광주시청 양궁단에 입단해 지난해까지 선수로 뛰었다. 국가대표로도 눈부신 활약을 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양궁 여자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로 2관왕을 달성한 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양궁여제’로 자리매김 했다.

광주여대는 기 교수에게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다.

기 교수는 “광주여대는 나에게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다. 그만큼 많은 애정을 갖고 있던 곳이다. 학교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전에도 선배로서 할 수 있는 걸 후배들에게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나도 공부를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후배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자기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기 교수는 ‘몰입도 높은 수업’, ‘예시가 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중

이다.

기 교수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해온 게 양궁이어서 그건 진짜 눈을 감고도 가르칠 수 있는데, 학문적인 이론 수업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됐다. 예전에 강의를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가장 좋았던 교수님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잘해주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다.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강의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나도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보배 교수님 수업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사이에 소문이 나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스포츠 심리학 과목을 연구할 때는 선수 생활 당시의 경험과 과정들이 비춰져보였다. 내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예시로 많이 들면서 수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도 이해하기에도 편하고 수업이 재미있어서 정말 좋을 거 같다”며 ‘인기 수업’에 대한 열망을 보였다.

그동안 ‘양궁 선수’라는 단어로 자신을 설명해 왔던 그는, 달라진 소개방식에 적응을 해가는 중이다.

기 교수는 “그동안 ‘안녕하세요. 양궁 선수 기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익숙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선수라는 수식어가 빠지니까 ‘기보배입니다’ 라는 인사가 되게 어색하고 썰렁하더라. ‘이제 뭐라고 나를 소개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다. 지금은 교수라는 말도 많이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교수의 목표는 양궁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이 다.

그는 “양궁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힘이 닿는 곳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 후배 선수들과 학생들에게는 스포츠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배려 등의 덕목을 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싶다.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농심배 수호신’ 신진서, 51개월 연속 한국바둑 랭킹 1위

올해 20승 2패...승률 90%

국가대항전인 농심 신라면배에서 불꽃 같은 투혼으로 한국의 역전 우승을 견인한 신진서(23) 9단이 51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질주했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3월 랭킹에서 1만418점을 기록, 2위 박정환(9907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 3라운드에서 중국과 일본의 정상급 기사들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두는 등 9승 1패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20승 2패로 승률 0.909의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진서는 최초로 연간 승률 90%에 도전한다.

박정환은 지난달 8승 2패를 거두며 두 달 연속 랭킹 2위를 지켰다.

변상일·신민준 9단은 변동 없이 각각 3·4위에 올랐고 김명훈 9단은 두 계단 상승한 5위가 됐다. 설현준 9단은 6위를 유지했고, 강동은 9단은 두 계단 하락한 7위, 김지석·한승주 9단은 자리를 맞바꿔 각각 8·9위, 안성준 9단은 4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목진석 9단은 4년 1개월 만에 공식 대국을 치르며 랭킹 66위에 올라 복귀를 알렸다. 여자기사 중에서는 최정 9단이 두 계단 하락한 21위, 김은지 9단은 8계단 상승한 54위, 김재영 8단이 5계단 하락한 78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세영



최혜진

우승 고픈 여자골프...중국서 우승도전 나서

내일 블루베이 LPGA 개막 최혜진·김세영 등 출전

2024시즌 초반이지만 아직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이번 주에는 중국으로 향한다.

7일부터 나흘간 총상금 220만 달러(약 29억 3000만원)를 걸고 중국 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 코스(파72·6675야드)에서 열리는 블루베이 LPGA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대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회가 개최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4년 만인 올해 다시 대회를 유치했다.

올해 LPGA 투어에서는 4개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선수들은 우승하지 못했다. 경쟁한 실력을 갖춘 한국 여자골프이기에 언제든 우승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지만,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라서 골프 팬들은 초조하다.

한국이 올림픽에 최대 4명의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6월 24일자 세계골프랭킹 15위 안에 4명이 이름을 올려야 한다.

올해 초반 하더라도 15위 안에 4명이 있었지만,

이달 4일자 세계랭킹에서는 2명만이 남았다. 고진영이 6위, 김주희가 9위로 자리를 지켰지만, 양희영은 16위, 신지애는 18위로 밀렸다.

현재 세계랭킹으로는 올림픽에 2명밖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림픽 전 한국 선수들은 세계랭킹을 15위 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번 주 블루베이 LPGA에는 고진영과 김주희, 양희영이 출전하지 않지만 세계랭킹 33위 최혜진과 39위 김세영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세영은 2015년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다.

세계랭킹 1위 릴리아 부(미국)와 3위 셀린 부티에(프랑스)도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우승 경쟁을 벌인다.

1승만 더 올리면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한 달여의 휴식을 마치고 지난주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 출전에 이어 다시 우승을 쟁조준한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잔드라 갈(독일)이 오랜만에 출전한다.

2011년 기아 클래식에서 우승한 같은 2022년 부상 때문에 골프채를 잡지 못했다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같은 그동안 라임병 치료와 허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경훈, 5개월만에 PGA ‘톱10’...코그니전트 클래식 공동 4위

이경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5개월 만에 톱10에 진입했다.

이경훈은 5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거든스의 PGA 내셔널 리조트 챔피언스코스(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총상금 9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공동 4위(13언더파 271타)에 올랐다.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이자 지난해 10월 슈라이어스 칠드런스 오픈 공동 7위 이후 5개월 만의 톱10 이내 입상이다.

최근 3개 대회에서 연속 컷 탈락했던 이경훈은 다시 반등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전날 악천후 탓에 최종 라운드를 13번 홀까지 치러 2타를 줄였던 이경훈은 현지 날짜 월요일에 재개된 잔여 경기 5개 홀에서 3타를 줄이는 뒷심을 보였다.

14번 홀(파4) 버디에 이어 17번(파3), 18번 홀(파5) 연속 버디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경훈은 “그동안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반등의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 기분이 좋다”고 상위권 진입을 반겼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도 찾고 좋아진 점도 봤다”는 이경훈은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진해 나가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경훈은 34만4천250달러라는 적지 않은 상금을 받았고 페덱스컵 랭킹도 112위로 42계단이나 상승했다. 하락하기만 했던 세계랭킹도 100위에서 85위로 올랐다.

우승은 PGA투어 2년 차 오스틴 에크로트(미국)에 돌아갔다.

3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에크로트는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정상에 올랐다.

전날 경기 8번 홀에서 2타를 줄여 단독 선두에 오른 에크로트는 이날 재개된 최종 라운드에서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우승까지 내달렸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5위 이민지의 동생인 호주 교포 이민우는 에크로트에 3타 뒤진 공동 2위(14언더파 270타)에 올라 PGA 투어 진출 이후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이민우는 한때 2타차까지 따라붙었지만 13번 홀 이후 버디 퍼트가 번번이 흩을 외면, 첫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민우는 이번 준우승으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출전 자격을 얻어냈다. 세계랭킹도 42위에서 31위로 경중 뒤편었다.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5타를 때린 안병훈은 공동 21위(10언더파 274타)로 순위가 올랐다.

김주형은 공동 62위(2언더파 282타), 김성현은 공동 67위(1오버파 285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2관	툰: 파트2
3관	패스트 라이브즈, 벙커 게임
4관	파묘, [위드키즈]브레드야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5관	왕가
6관	파묘
9관	툰: 파트2, 가여운 것들, [위드키즈]브레드야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7관	씨네커플 파묘
8관	씨네커플 파묘, 소풍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광주예술의전당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